

제4.21호

행정명령

**뉴욕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뉴욕주 전역의 재난 비상 사태 지속 선포**

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인력난이 발생하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,

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심각한 인력난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을 올바르게 돌볼 수 있는 능력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,

병원 및 의료 시설이 제역할을 하려면 즉각적으로 직원을 충원해야 합니다. 그리고

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뉴욕주 법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, 이로써 행정명령 제4호에 명시되고 후속조항에 계속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 재난비상사태를 연장하고, 이에 따라 행정명령 제4호 및 후속조항에 포함된 조건, 약관 및 효력 정지를 2023년 6월 8일까지 이어갑니다.

2023년 5월 22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 
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 
선포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